

중국, 희토류 정부통제 “공식화”

광산 2500km² 국가계획지구 지정 ... 중희토류 매장량 71만톤

중국이 국가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직접 관리키로 했다.

관영 ShaanxiTV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최근 희토류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Jiangxi의 Ganzhou를 포함한 11곳의 2500km² 이상을 희토광산 국가계획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광산을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지정된 국가계획 광산지구의 희토류 매장량 76만톤 중 가격이 비싼 터븀(Terbium) 등 희귀성 중희토류 매장량이 71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자원부 광산개발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중점 보호해야 할 광산자원 중 하나인 희토류의 중국 매장량이 세계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생산량은 세계의 9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희토류가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이미 수출쿼터를 줄이는 방식으로 희토류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섰으며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9.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 광산기업들은 희토류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희토류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하이테크산업의 비중이 큰 한국과 일본은 희토류 비축계획을 밝힌 바 있다.

EU(유럽연합)도 희토류의 전략적 비축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 정계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14>